

【 해외금융뉴스: 북미 】

미국, 자동차관련 보험사기 증가

□ 경기불황으로 인해 자동차 할부금에 부담을 느낀 운전자들이 보험사기를 일으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미국 보험범죄방지국(The 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)에 따르면 고의로 추정되는 자동차 화재건수가 1/4분기에만 전년동기대비 27% 증가하였으며 자동차를 유기하는 경우도 24% 증가했다고 밝힘.
- 자동차 방화나 유기 관련 보험사기 외에도 고의로 추정되는 개인 상해건수는 60% 증가하였고, 의도된 자동차 사고 34%, 기타 재물에 대한 화재/방화는 76% 증가하는 등 보험사기 발생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.

□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소비자들은 보험회사가 개별 사건을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으며, 실제로 일반적인 사고와 고의적인 사고를 구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.

- 고의적인 자동차 유기건수는 실제 자동차 도난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꼼꼼하게 조사하지 않는 이상 구별해내기 어려운 상황임.
- 2009년 1/4분기 고의적 자동차방화 건수는 757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596건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적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실제 방화건수는 그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됨.

□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통 주변인들과의 공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허위도난 신고 차량을 단순 유기하지 않고 암시장 등에 내다 파는 경우도 있음.

- 보험범죄방지국의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사기에 친척이나 친구들이 연 관되어 있다고 밝히고 즉흥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하며, 일부는 차량을 도난신고 하기 전, 멕시코로 가져가 암시장에 팔거나 차량을 분해해 부품을 내다 파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함.

(LA Times, 6/8)